

강원 문화의 이해 영춘맺기
올림픽을 중심으로 보는 평창의 성장과 현재

문화인류학과 202410301 김산하

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II. 본론

1. 평창의 지역적 특징
 - 1-1. 지리와 행정구역
 - 1-2. 기후
 - 1-3. 문화: 메밀과 관광
 - 1-4. 농업
2. 평창 지역의 역사
3. 동계올림픽의 진행 과정
 - 3-1. 동계스포츠의 시작부터 유치까지
 - 3-2. 유치 확정과 개최까지
4. 평창의 현재

III. 결론 및 제언

IV.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서울에서 성장한 필자에게 강원도는 관광의 중심지로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경험이 있다. 평창 역시 대관령 양떼목장, 오대산 등의 관광지가 유명한 지역인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며 익숙한 도시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평창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심리적인 친숙함에 비해, 정작 그곳을 제대로 방문하여 체감해 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 평창이라는 도시를 탐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특히 최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보며, 8년 전 대한민국을 달구었던 평창의 열기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한 명의 스포츠 팬이자 지역 문화를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올림픽 이후 평창에 남겨진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사가 현재의 평창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평창의 진정한 지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평창이라는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탐구해 보고자 본 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단순한 흥미나 개인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동계 스포츠의 형성과 지역 발전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평창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도 평창이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어떠한 지형적·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 성장했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을 올림픽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더불어 대규모 국제 행사가 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평창이 마주한 지역적 현황과 과제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올림픽 이외의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함께 들여다봄으로써 평창이라는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적 애착을 형성하는 것 또한 본 연구가 지닌 중요한 의의이다. 이를 통해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인 평창의 이미지 속 감춰진 미시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올림픽이 남긴 유산이 진정으로 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현장 조사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문헌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병행한다. 평창이라는 지역을 잘 이해하고 알아보기 위해 언론 보도, 학술지, 지자체 통계와 사후 관리 보고서를 수집하여 평창의 이미지 변화와 지역 경제 및 시설 활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2018 올림픽 전후의 시기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 성장의 성과와 한계를 입체적으로 도출한다.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는 대신 영상과 보도 자료를 통해 지역민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며 다양한 자료의 검토를 통해 평창의 이해도를 높이고 올림픽 이후 평창의 현재를 살펴본다.

II. 본론

1. 평창의 지역적 특징

평창군은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중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태백산맥의 중앙에 위치하여, 평균고도 600m 이상에 달하는 지역이다. 2026년 3월 기준 인구는 39,860명이며 면적 1,464.25㎢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면적 16,830.14㎢의 약 8.7%를 차지하며,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3번째로 면적이 넓다.

1-1. 지리와 행정구역

앞서 말했듯 평창은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도시이며, 1개의 읍과 7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남부권, 중서북부권, 동북부권의 3개의 생활권을 가지고 권역별로 중심지를 설정하고 있다. 평창군의 유일한 읍인 평창읍은 행정, 교육, 문화생활의 중심지이며 군청의 소재지이기도 하다. 남부권은 평창, 미탄, 방림을 합하여 설정되었으며 평창읍이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서북부권은 대화, 봉평, 용평을 합하여 설정되었으며 대화면이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동북부권은 진부와 황계를 합한 지역으로 진부지역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¹⁾ 또한 평창이라는 지역이 태백산맥의 중앙에 있기에 동·북·서 삼면이 높고 험준하며, 남쪽으로 경사져 있다. 북쪽에는 오대산·계방산·황병산·대관령, 또 서쪽에는 오대산에서 분기한 차령산맥이 있다. 한강의 지류 평창강은 중앙부를 감입곡류 하면서 역내 대부분의 물을 모아 남쪽으로 흘러 연안에 소선상지와 범람원을 형성하고 있다.



(평창군의 행정구역 지도)

1) 출처: 위키강원 <https://wikigw.gwe.go.kr/wikiw/18#6.%EC%A4%91%EC%8B%AC%EC%A7%80>

1-2. 기후

평창의 기후는 내륙 고원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온의 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어 같은 위도의 어느 지역보다도 기온이 낮고, 여름이 짧다. 특히 평창 내에서도 개별적인 인지도가 있는 대관령면은 남한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서리가 내리는 지역 중 하나이며, 연중 강풍이 잦아 풍력발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기후 통계에 따르면 대관령의 연평균 기온은 7.1°C이며, 연교차는 26.6°C이다. 가장 더운 8월의 평균 최고기온은 23.6°C이고, 가장 추운 1월의 평균 최저기온은 -12.2°C이다. 계절별 평균기온은 봄 6.6°C, 여름 18.5°C, 가을 8.6°C, 겨울 -5.3°C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695.1mm이고, 월별 합계 강수량은 8월이 368.4mm로 가장 많으며, 12월이 34.7mm로 가장 적다. 계절별 강수량은 봄 274.3mm, 여름철 867.2mm, 가을 416.6mm, 겨울 132.5mm로 여름철 강수량이 전체 강수량의 약 51%를 차지한다.²⁾

1-3. 문화 _ 메밀

본 연구의 중심 주제로 올림픽을 선정했으나, 평창을 단순히 동계올림픽과 스포츠만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먼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가 바로 평창군이다. 이효석 소설가의 이 소설은 한국문학에서도 한 획을 그은 저명한 작품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적인 측면을 강조해 보겠다. 이 작품으로 인하여 우리는 인구가 6천 명이 채 되지 않는 봉평면이라는 지역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 이효석 작가가 태어난 곳 역시 봉평면이기도 하다. 이렇듯 메밀 하면 봉평을 떠올리게 되지만, 메밀의 최대 산지는 평창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이다. 1975년에 영동고속도로가 가설되고, 1980년대에는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며 문학을 읽은 이들이 메밀꽃을 보러 봉평을 찾게 되자 논밭은 물론 도로변에도 메밀을 심었다. 이후에는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다양한 메밀 음식을 개발하기도 했다. 최대 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적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 것은 역시 문학과 이미지의 힘이 크게 작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평창군 봉평면의 메밀밭 사진)

2) 출처: [기상청 날씨누리](<https://www.weather.go.kr>)

1-3. 문화 _ 축제

평창군은 메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메밀이라는 자원을 적극 활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단법인 이효석문학선양회에서 주최하는 '평창효석 문화제'는 메밀꽃이 만개하는 매년 9월 개최된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문화제는 '메밀꽃 필 무렵'을 테마로 잡아 마당극 공연이나 라디오 공개방송, 문학 포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며 평창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 또 평창군의 축제에는 1993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겨울 축제인 '대관령 눈꽃 축제'가 존재한다. 겨울철 비수기를 이겨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목표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발전한 이 축제는 지난 1월에 개최되었으며 '동계 꿈나무 눈동이의 국가대표 성장기'를 테마로 동계 스포츠 체험존을 만드는 등 변화하며 여러 관광객을 불러오고 있다. 이 밖에도 '평창농악 축제'나 '평창송어축제'와 같은 지역 축제들을 꾸준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



(2026년 대관령 눈꽃축제의 포스터)

1-4. 농업

평창은 산간지대가 많아 총 경지면적 1만 1008ha 중 논이 923ha, 밭이 1만 85ha로 밭이 매우 많다. 농가 수는 5,018가구, 농가 인구는 1만 4,134명이다. 전체 경지의 약 80%가 고랭지로, 무·배추 등의 재배가 활발하다. 채소류 외에 옥수수, 감자, 멜론 등의 재배 역시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대관령면은 대표적 씨감자 생산 지역으로 감자 원종장과 고랭지 시험장 등이 있다. 대관령·대화·진부령 등지에는 낙농 목장이 분포해 있다.³⁾

3) <https://ko.wikipedia.org/wiki/%ED%8F%89%EC%B0%BD%EA%B5%B0#>

2. 평창 지역의 역사

평창은 삼국시대 고구려의 우오현으로 시작해 통일신라 경덕왕 시기 백오현으로 개칭되며 역사적 기틀을 마련했다. 고려 태조 23년(940)에 이르러 현재의 지명인 '평창'으로 명명되었으며, 충렬왕 시기에는 원주로부터 독립하여 현령이 파견되는 행정적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에는 태조 선조인 목조비의 고향이라는 연고로 지군사로 승격되었고, 1896년 근대적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강원도 평창군으로 편제되었다. 20세기 초 강릉으로부터 대화·봉평·진부면을, 정선으로부터 도암면을 편입하며 현재의 광역 군역을 완성하였으며, 1979년 평창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2007년에는 지역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개칭하고, 2009년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며 청정 자연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2011년 세 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평창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세계적인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2005년부터는 'Happy 700'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동·식물의 생체리듬에 가장 적합한 해발 700m를 앞세워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청정한 곳이라는 의미이다. 군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주산업인 농업을 관광 문화예술 레저스포츠와 연결해 융·복합형 레저·휴양 전원 농촌으로 발전시킨다는 평창군의 목표를 담고 있다.⁴⁾



3. 동계올림픽의 진행 과정

3-1. 동계 스포츠의 시작부터 유치까지

앞서 평창의 지역적인 특징과 문화를 살펴보면 적설량이 많고 고지대인 평창은 동계 스포츠가 발전하기 쉬웠다는 환경임을 확인했다. 평창의 동계 스포츠는 설상의 대표 종목인 스키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스키장이 바로 1953년에 대관령에 건설된 대관령 스키장이다. 이후 대관령 스키장은 1975년 용평스키장으로 개장되었고, 국제스키연맹(FIS)으로부터 실버, 레드, 골드 코스에 대해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 공인을 받았다. 해발 1458m 발왕산 기슭에 위치해 연평균 250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는 용평스키장

4)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28049>

에서는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4월 초까지 스키를 즐길 수 있었다. ‘용평’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히 갖춘 세계적인 스키장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1999년 동계아시안게임과 1998년, 2000년, 2003년, 2005년 월드컵 스키대회 그리고 2007년 세계인터스키대회 등의 다양한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스키어와 관광객들에게도 그 명성이 높다.⁵⁾

2000년대 당시 국가 차원에서 볼 때, 강원도 평창은 국내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전략 역시 존재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개최해도 큰 경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해 여러 국가가 상대적으로 덜 나서는 분위기가 시작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1988년 올림픽이나 2002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인 이벤트를 통해 덕을 봤다고 생각했고,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시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을 통해 평창을 세계적인 겨울 관광지로 도약함과 동시에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한 단계 격상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올림픽 개최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창의 올림픽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2010년 유치 당시 평창은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파란을 일으켰으나, 최종 투표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통한의 역전패를 당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이어진 2014년 유치 도전에서도 강력한 후보였던 러시아 소치와 끝까지 경합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1차 투표 1위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선에서 불과 4표 차라는 아쉬운 결과로 탈락하였다. 연이은 실패의 원인으로서는 세계 시장에서의 인지도 부족과 당시 미비했던 경기장 및 교통 인프라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90%를 넘는 높은 국민적인 지지율에 힘입어 유치를 포기하지 않았고, 강원도민과 평창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유치 위원회를 구성해 전 세계를 돌며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여기에 김연아 선수와 같은 상징적인 스포츠 스타와 유명 인사들이 홍보 활동을 이어 나갔고,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될 수 있었다.

3-2. 유치 확정과 개최까지

그렇게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직후 평창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문화, 환경, 평화, 경제, ICT라는 5대 핵심 가치를 정립하고 대규모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가장 먼저 당면한 과제는 태백산맥 중심부에 위치하여 발생하던 지리적 격리와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2017년 12월 개통된 KTX 강릉선은 수도권과 평창을 1시간대로 연결하며 물리적 거리를 단축했다. 이와 함께 도로망의 정비도 조용하던 산간 마을을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경기 시설은 효율적인 대회를 위해 평창의 설상 중심 '마운틴 클러스터'와 강릉의 빙상 중심 '코스탈 클러스터'로 이원화되어 개발되었다. 알펜시아 리조트의 리모델링과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의 신설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하드웨어가 구축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정선 가리왕산의 환경 훼손 논란과 같은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5)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01007>

또한, 대관령면의 평창 올림픽 플라자는 사후 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계되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타협안을 모색하였다. 이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여 개의 테스트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시설을 검증하였다. 물론 대회 개최를 앞두고 순탄한 과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등 정치, 사회적 악재가 평창올림픽의 대외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대회 직전까지도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과 부실한 홍보 등 안팎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역경을 뒤로하고 2018년 2월 9일, 대망의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렸으며, 이어 3월 18일 패럴림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대회 전의 수많은 우려와 달리 올림픽은 매끄러운 운영과 감동적인 서사를 선보이며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고, 이는 당시 국민 여론의 84%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대형 이벤트로서의 대장정을 화려하게 마무리 지었다.

4. 평창의 현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현재의 평창은 대형 이벤트가 남긴 화려한 역사와 지방 소도시가 마주한 일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올림픽 기간 평창은 단숨에 세계적인 스포츠의 중심지이자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는 공간으로 격상되었다.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이 투입되었고, KTX 강릉선을 필두로 한 광역 교통 인프라와 거대한 경기장들이 대거 들어서며 지역의 물리적 지형을 완전히 재편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개최 지역의 구조적, 문화적, 심리적 지형을 전환하는 분기점이 분명했다. 그러나 당초 유치 과정에서 기대했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오늘날 평창이 마주한 현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시한 유산의 성공적 안착이라는 학술적 성과와 급격한 인구 소멸 및 재정적 부담이라는 지역사회의 그늘이 동시에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평창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긍정적 유산의 내면화 과정과 구조적 한계의 이면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올림픽이 평창에 남긴 가장 가시적이고 성공적인 유산은 물리적 기반 시설의 확충과 이로 인한 지역 브랜드 가치의 상승이다. 실제 주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IOC가 제시한 7대 영역의 장기 기대 혜택 중 개최지 주민들은 도시 및 환경 발전, 관광 산업 진흥, 스포츠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6대 영역, 24개 항목에서 올림픽 유산의 긍정적 효과를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다.⁶⁾ KTX 개통은 강원 산간 지역을 수도권과 짧은 시간으로 연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선수촌 아파트 건설과 일반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더불어 녹지 공간 확대 등 생물 다양성 보호를 수반한 환경 개선 역시 주민들이 체감하는 일상적 혜택 중 하나다. 결과적으로 평창이라는 지명의 글로벌 인지도를 크게 높여 현대적 의미의 문화·레저 소비 공간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물리적·경제적 도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유산인 개최지 주민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올림픽 개최를 경험하며 형성된 다채로운 장기 기대 혜택들은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을 높이고, 일

6) 김소희, 이원재, 편현웅, 김청운, 한승진. (2023). 올림픽 유산(Legacy)에 대한 개최지 주민의 인식: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12(7), 1-18.

상 속에서 지속적인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 올림픽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외국인 방문객을 직접 응대하며 축적한 휴먼 스킬과 타문화 이해 능력, 그리고 유소년 빙상 스포츠 참여를 이끄는 조직화된 훈련 시스템 등은 주민들의 내면적 안녕감을 지탱하는 비경제적 자산이 되었다. 즉, 올림픽 유산은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 대해 느끼는 거시적인 자부심과 주관적 만족감이라는 심리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⁷⁾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자부심의 이면에는 거대 하드웨어 시설의 사후 관리 실패와 활용도 편차라는 구조적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사후 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와 계획 수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 설정된 유산의 범위가 건조물 외에도 문화, 환경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면서, 정작 핵심 경기 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사후 활용 방안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 개최 도시 간, 그리고 시설 간의 활용도 극과 극의 편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강릉의 아이스아레나가 올림픽 이후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및 대형 공연장, 선수 전용 경기장으로 발 빠르게 전환되어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쓰임 속에 녹아든 것과 대조적으로,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에 위치한 설상 및 썰매 경기장들은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 운영 현황, 출처: 강원도민일보)

현재 평창의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같은 거대 시설들은 장기적인 운영 모델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간헐적인 대관 용도로만 임시 운영되거나, 일부 시설은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처럼 단순 전망대로만 쓰이는 등 본연의 스포츠 기능을 상실한 채 멈춰 서 있다.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운영권의 한계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독자적인 생존 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또 다른 국내외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경기 시설의 존재 명분만을 임시방편으로 이어가는 실정이다. 이는 올림픽 시설들이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커뮤니티 공간이나 생산적 자산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과거의 환희를 박제해 둔 단발성 이벤트의 '기념비적 유물'이자 전시용 유적지로 전락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7) 김소희, 편현웅, 한승진, 이원재. (2023). 올림픽 유산(Legacy)과 행복: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12(8), 139-150.



(평창올림픽 기념관, 출처: 평창올림픽 기념관 홈페이지)

지자체들이 동계올림픽이 남긴 시설과 이미지를 연계하여 평창을 '사계절 레포츠 관광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실제로 많은 외부 방문객이 국가적 성취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평창을 찾고 있다. 방문객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거대한 스키점프대와 올림픽 기념 공원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방문하며, 2018년 당시 공동체가 공유했던 승리와 감동의 서사를 일시적으로 소비하고 떠난다. 그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과거 공동체가 일구어낸 승리와 감동의 서사를 일시적으로 소비하고 떠나가지만, 이러한 온기는 지역사회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정작 그 화려한 관광의 무대 뒤편에서 매일의 삶을 영위하는 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인 생활 밀착형 여가 공간이나 실질적인 경제적 선순환 구조로부터 물리적, 심리적으로 떨어진 채, 소외감을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다. 즉, 메가 이벤트의 화려한 레거시가 외부인을 위한 전 시용 유적지이자 박제된 상품으로 기능하는 동안, 진짜 평창을 살아가는 남겨진 사람들은 정작 장소의 중심에서 밀려나 소외되는 역설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평창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토대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올림픽 유치 당시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던 경제적 유발 효과의 경제학적 장담과 달리, 8년이 지난 현재 평창 주민들이 피부로 마주하는 현실은 지역 경제의 자생력 약화와 인구 구조의 붕괴라는 지방 소도시의 한계다.

최근 평창군의 인구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만 명 선마저 위협받으며 심각한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겪고 있다. 외부 관광객의 간헐적인 방문과 일시적인 소비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거대하게 지어진 올림픽 시설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년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은 지자체와 사회에 장기적인 재정적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림픽 직후 기획되었던 아레나 중심의 시민 음악회나 창작 프로그램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일을 맞아 전면 중단되면서, 올림픽이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 문화 및 예술 활동의 발전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결과적으로 산간 지역에 넓게 분포한 설상 경기장들은 평창 주민들의 일상적 동선이나 생활 밀착형 여가 공간과는 물리적·심리적으로 철저히 유리된 채, 거시적 자부심과 미시적 소외감의 간극만을 넓히는 상징물로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의 현재가 마냥 부정적인 절망으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니다. 올림픽의 무형적 유산과 상징성을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또한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올림픽 이후 출범한 '2018 평창기념재단'이 있다. 재단은 올림픽의 열기와 기쁨을 지속시키기 위해 수호랑·반다비 캠프를 개최하고 다양한 국내외 대회를 연속성 있게 유치하는 등 유산 사업의 명맥을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특히 눈이 내리지 않는 기후를 가진 국가의 청소년과 시민들을 초청하여 동계 스포츠를 체험케 하는 '드림 프로그램'과 '신남방 선수 육성 사업'은 평창올림픽이 지향했던 글로벌 평화와 스포츠 저변 확대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사업들은 평창을 세계 동계 스포츠의 연대와 협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유효하게 기능하게 만든다.

III. 결론 및 제언

본 영촌맷기 보고서는 평창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다면적인 유산을 확인하고, 개최 후 8년이 지난 현재 평창이 마주한 상황을 마주해보고자 했다. 평창은 과거 변방의 산간 지역에서 이벤트를 계기로 글로벌 스포츠 도시라는 이미지를 획득했으며,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개최지 주민들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림픽이 남긴 기대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상 속 긍정적 정서를 고양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며 지역사회의 내면적 자부심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량적·심리적 성과의 이면에는 거대 경기 시설의 구체적인 사후 관리 계획 부재로 인한 활용도 편차,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에 따른 지자체의 잠재적 재정 그늘, 그리고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지는 지방 소도시의 급격한 소멸 위기라는 현실이 강력하게 교차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평창은 화려하게 구축된 인프라에 비해, 이를 지속 가능하게 채워나갈 지역 자생적 환경이 결핍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이 추진하는 '드림 프로그램'이나 '신남방 선수 육성 사업' 등은 올림픽의 가치와 상징성을 이어가는 훌륭한 시도이지만, 이 역시 외부 유입 인구 중심의 한시적 사업에 머물 뿐 소멸해 가는 지역 공동체 내부의 실질적인 내부로 깊숙이 스며들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아무리 뛰어난 글로벌 랜드마크라 할 지라도 거주민의 생업이나 일상적 유대감 형성과 유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유산으로 뿌리내릴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평창에 남겨진 궁극적인 과제는 이벤트의 유산을 국가 주도의 거대 담론이나 엘리트 스포츠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곳을 터전으로 삼은 지역민의 생활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일상의 공간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제는 간헐적인 대관이나 전시성 관광에 의존하는 기존의 사후 활용 방식에서 탈피하여, 거대한 올림픽 시설들을 주민들의 복지, 일상적 여가, 그리고 생업에 기여하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재조정해 남겨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화려한 무대의 그늘 속에서 소외를 감내해 온 지역민들의 삶에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일상을 지탱할 자생적 환경을 제공할 때, 평창의 올림픽 유산은 비로소 단순히 과거의 환희를 박제하는 유물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진정한 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한 학기 동안 진행한 영촌맏기는 평창이라는 지역을 새롭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이전까지 평창은 막연히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장소로만 인식되었고 그 이상의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이다. 하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 평창의 문화와 삶 전반을 깊이 있게 조사하면서, 비로소 이 지역을 알게 될 수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꼭 한번 직접 방문해 보고 싶다는 애착이 생겼다. 무엇보다 올림픽 이후의 현황을 다룬 논문과 인터뷰를 분석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그간 우리가 문화를 너무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소비해 왔다는 점이다. 늘 거대하고 화려한 이벤트에만 주목하느라 정작 그 이면에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영촌맏기를 통해 획득한 이 값진 문제의식은,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각적 토대가 되어주리라 생각한다.

IV. 참고문헌

- (1) 심성민, 유석연. (2023). 올림픽 유산 사후활용계획 적용에 관한 연구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경기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4(3), 79-97.
- (2) 오민재, 이후석. (2019). 지역주민의 메가이벤트에 대한 영향인식과 개최 효과인식의 관계 분석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과 개최 후의 비교. 관광연구저널, 33(11), 103-116.
- (3) 정정택.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올림픽 레거시 활용방안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3. 경기도
- (4) 김소희, 편현웅, 한승진, 이원재. (2023). 올림픽 유산(Legacy)과 행복: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12(8), 139-150.
- (5) 김소희, 이원재, 편현웅, 김청운, 한승진. (2023). 올림픽 유산(Legacy)에 대한 개최지 주민의 인식: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12(7), 1-18.
- (6)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16879>
- (7)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01007>
- (8)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28049>
- (9) KBS, <https://youtu.be/3Wb4MLNbXfE?si=xGEgBhcaCMZNa9Qe>
- (10) 원주MBC, <https://youtu.be/rshBRljSExM?si=ZoZrXtSTAXm923BA>
- (11)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31544001>
- (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6126200062>
- (13)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844
- (14)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amparticle/11828145>